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9. 11. 28.(목) 총 5매(본문 3)	
담당 부서	간선도로과	담 당 자	•과장 이정기, 사무관 정경인 ☎ (044) 201-3888, 3891	
	대전지방 국토관리청	담 당 자	•도로시설국장 이원돈, 도로공사과장 문선일 ☎ (042) 670-3500, 3550	
보 도 일 시		2019년 11월 29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29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잘못 시공된 교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근본적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2월부터 옥천 방하목교 일부구간 재시공·근본적선제적 안전성 확보 조치키로
 내년 2월부터 옥천방향 2개 차로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운영(양복4차로 → 양복2차로)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‘방하목교’(국도 37호선, 377m) 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, 재시공·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□ 해당 공사*의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(청장 김선태)은 올해 3월 자체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면 보다 1m 높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선,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량 공용 시 구조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,

* (공사명) 국도37호선 ‘인포-보은2’ 건설공사 (공사기간) 2010.1~2018.12
 (공사내용) L=8.18km, 4차로 신설 (시공사/감리사) 화성산업 / 삼보기술단

○ 정확한 구조적 안전성 등 시공실태 확인을 위하여 ‘(사)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’를 통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정밀하게 안전성을 평가(책임자 : 단국대학교 정철현 교수)하였으며

- 그 결과,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는 문제가 없으나, 5번 교각 상부구간의 최소종단곡선길이·정지시거 등이 도로시설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요인으로 중·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구간의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-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(대전지방국토관리청)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방하목교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을 추가하여 설치·운영 중이며, 방하목교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경간(70m)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.



< 방하목교 상부 구조물 철거(재시공) 구간 >

-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의 잘못된 시공됨을 인지한 3월부터 과속 단속카메라, 교통안전표지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으며, 최근 시선유도시설, 안전표지 등을 추가 설치하여 해당구간에 총 50여 개의 안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다.
- 또한, 신속한 재시공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설계에 착수하고, 설계 완료 후 내년 2월부터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실시하여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.

○ 철거 및 재시공 공사기간 동안 방하목교는 보은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어 옥천방향 2개 차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·운영 (왕복 4차로 → 왕복 2차로)되며,

- 재시공 완료시까지 도로 순찰,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, 강우·강설 등의 기상 악화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된 경위 등 원인 규명을 위해 발주청·시공·감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,

○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·징계를 요청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“방하목교의 재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는 등 도로관리를 강화할 것이며,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(2차로 운영) 기간에는 통행속도를 저감(40km/h)하여 운영할 계획이니 도로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전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.”라면서, “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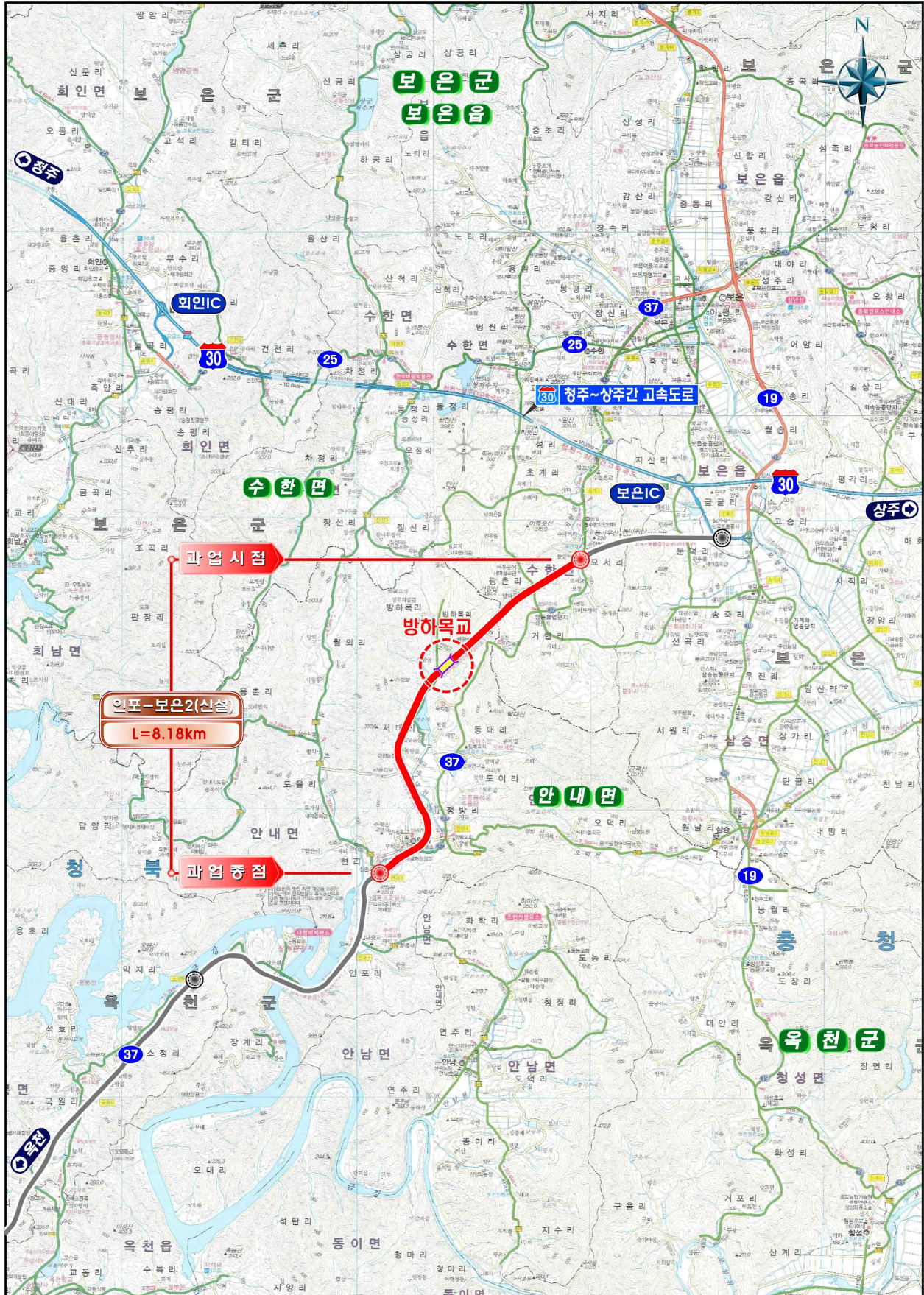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“국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,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, 감사 결과에 대해 일별백계하여 업계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.”고 강조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정경인 사무관(☎ 044-201-3891)
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(☎ 042-670-35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인포-보은2 [방하목교] 위치도





교량 전경



교량 측면 전경